희귀 티베트어 불경 필사본, 힌디어로 출판

1930년대 인도 불교학자 라훌 입수
비하르 주정부, 2019년 번역 계획
"인도 국민 모두 볼 수 있다는 뜻"
불경, 논장 등 5권으로 구성 예정

박영빈 객원기자


번역작업의 원본이 되는 티베트의 필사본들을 보는 비하르 주지사(좌).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근대 인도불교와 언어학자로 유명한 라훌 산크리티야얀(1893~1963)이 티베트에서 인도로 가져온 티베트의 고대 불교 필사본이 힌디어로 번역됐다. 5월 19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 등은 현대 인도에서 되살아나는 고대 인도불경의 유산들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어 필사본들은 1930년대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불교학자인 라훌 산크리티야얀이 4차례의 티베트 방문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라훌은 당시 스리랑카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었고 이 덕에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의 협조를 얻어 노새 11마리 분량의 필사본과 불화, 불상들을 수집하여 인도로 귀국했다. 현재 이 유물들은 인도 파트나 박물관에 '라훌 컬렉션' 으로 보존되고 있다.

라훌 컬렉션을 현대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로 번역하려는 계획은 2019년 시작됐다. 비하르 주정부는 바라나시에 소재한 중앙 고등 티베트 연구소(CIHTS)와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교리와 철학을 접하는 것을 목표로 번역 사업에 착수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힌디어 번역본 인쇄를 위해 1940만 루피(한화 약 3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CIHTS의 한 연구원은 "이 필사본들의 원본은 고대 인도불교의 거점이었던 날란다 대학과 비크라마실라 대학에서 저술되고, 소장되었던 산스크리트어 원고들"이라며 "그 원고들이 7~11세기 사이에 티베트로 전해졌고 인도의 학자들과 티베트인 역경가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필사본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훌 컬렉션의 필사본들에는 불교철학, 명상수행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을 비롯해 의학, 법률, 수사학, 점성술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의 책들이 포함돼 있다. CIHTS의 부총장인 게쎄 아왕쌈땐 스님은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책들을 다시 힌디어로 번역하는 것은 비하르주 뿐만 아니라 인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고대 인도 불교의 보고인 날란다와 비크라마실라의 지적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번역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

현재 번역이 완료돼 출판준비가 된 문헌들은 먼저 5권의 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업분별경〉, 〈반야심경〉과 같은 불경과 〈중관장엄론〉 등의 논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10세기경 인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논사로 만년에 티베트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아띠 디빵까라의 (980~1053)가 문집 및 기타 희귀 사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CIHTS 측이 밝혔다.

CIHTS 측 관계자는 원래 연구소 국제 베삭데이인 지난 5월 5일에 5권의 책을 출판하기로 주정부와 합의돼 있었으나 몇몇 이유로 지연됐다고 전했다. 번역사업을 후원하는 비하르 박물관과 비하르 주정부 문화예술부 측은 "지연이유를 시급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책을 출간할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전체가 탱화공장…티베트 불화마을 '우툰' 화제

예술작품으로 MZ세대에게도 각광
금전 관심보이는 외부작가 경계도


탕카학교에서 습작을 그리고 있는 우툰마을의 학생들. 사진출처=식스 톤 닷컴

티베트 고원의 외딴 마을인 '우툰'. 최근 이곳은 티베트 전통 불화인 탕카를 조성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마을 전체가 탱화공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우툰마을을 지난 5월 20일, 중국 뉴스 전문 포털인 '식스 톤 닷컴' 이 특별 보도했다.

동부 티베트인 암도, 렙꽁 지역의 외딴 마을인 우툰은 오랫동안 티베트 불화인 탕카를 그려온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현재 우툰마을을 중심으로 렙꽁지역에서 탕카 조성,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장인들은 최소 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7억 8천만 위안(한화 약 1,500억 원)으로 현재 이를 바탕으로 탕카 산업은 더욱 성장하는 추세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탕카가 시작된 것을 10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으며 15세기까지는 평범한 지역화풍으로 이어져 오다 16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우툰 지역 탕카의 특징은 다른 화풍들에 비해 더 밝은 색상으로 그려지며 화려한 순금 장식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꼽힌다. 특히 국경지대였던 만큼 중국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탕카 속에 묘사되는 풍경이나 인물의 의복들이 중국 전통 수묵화에서 보이는 도안이라는 점도 각광받고 있다.

우툰지역의 탕카는 불교 박해가 극심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비밀리에 전수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호황에 따라 커진 미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유네스코가 탕카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예술형식으로 지정하면서 탕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우툰에서 탕카 갤러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탕카는 특히 베이징이나 항저우, 상하이처럼 불교문화가 뿌리 깊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 등의 상황 속에서 호신불용으로 그려진 소형 탕카들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MZ세대들 가운데서도 탕카 애호가들이 늘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중국 전역에 퍼진 탕카 열풍은 우툰마을과 렙꽁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줬지만, 현지 티베트인 작가들의 걱정도 만만찮다. 우툰의 유명한 탕카작가인 체링따시는 "우툰지역은 전통적으로 탕카를 그리려는 학생을 사찰로 보내 스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서 탕카를 배우게 했다. 탕카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예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스님들 가운데 수행으로 탕카를 그리는 분들도 많다"면서 최근에는 금전적인 관심으로 탕카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나 외부 작가들을 경계했다.

조악한 탕카의 유행이나 작가들에 대한 노동착취도 문제시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탕카 작가는 "일주일에 단 하루 쉴 수 있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탕카만을 그린다. 바깥세상을 보고 싶다. 탕카를 그린 대금도 대부분 중개상이나 갤러리가 가져가 실제 수익이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스님들 행각 순례단 구법 여정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까지 매일 30km 걸어


태국 행각 순례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CNN

태국스님들이 태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까지 행각 순례를 수행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5월 18일 인도네시아 국가 통신사 '안타라' 는 태국 스님들의 행각(行脚) 순례를 보도했다. 행각 순례는 수행자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 불법(佛法)을 익히는 구법 여정이다.

3월 27일 태국에서 출발한 32명 행각 순례단은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기념하는 웨삭데이(Vesak Day)를 기념하기 위해 6월 2일 보르부두르 사원에서 대장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순례단의 마하 오르 스님은 "3월 27일 태국에서 행각 순례를 시작한 우리는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혹독한 더위나 폭풍우 속에서도 매일 30km, 휴식기간 동안에는 15~20km씩 불법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다.

최종 목적지인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각 수행하는 순례단은 자바 찌레본에서 휴식을 취했다. 순례길을 따라 선 수천 명의 찌레본 주민들은 태국 행각 순례단에게 손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한 스님은 "사흘 전에는 이슬람교가 우세한 인드라마유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민들에게 커피를 제공받기도 했다. 행각 순례 중 여러 국가를 방문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주어 인도네시아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환영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도네시아는 불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있는 사회"라며 칭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들, 영국서 티베트 불교의례

뉴버리 봄 축제 '자비의 힘' 초청받아


따쉴훈보 사원의 스님이 의식무로 법열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출처=나탈리아 블롬베르크

지난 5월 21일 영국 지역 주간지 '뉴버리투데이' 는 뉴버리 봄 축제의 티베트 불교 의례 시연 소식을 전했다.

영국 버크셔주에 위치한 뉴버리 봄 축제 '자비의 힘' 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불교 의례를 시연했다.티베트 사원 '따쉴훈뽀' 서 온 8명의 스님들은 개회식으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는 칸도땐슉 기도를 봉행했다. 각각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예복을 무대에 펼쳐 높고 긴 나팔과 법고를 치며 법요식을 알렸다. 이후, 승려들은 귀의와 발심 기도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켰다. 작은 바라인 띵샤로 깊은 명상을 향해 이끌며 고통을 덜어주는 의식을 치렀다.

쬐(chod)기도를 통해 스님들은 자신의 팔 다리 등을 배고픈 아귀와 귀신들에게 내어주는 관상을 통해 무상관을 수행했다. 쬐 기도가 끝난 후, 진행된 의식무에서 스님들은 단도와 해골모형이 장식된 모자 등 불교적 의미가 담긴 상징들을 들고서 죽음을 물리치는 춤을 공연했다. 또한 금강계 37존을 예찬하는 기도에서는 각 불보살들을 상징하는 수인을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불보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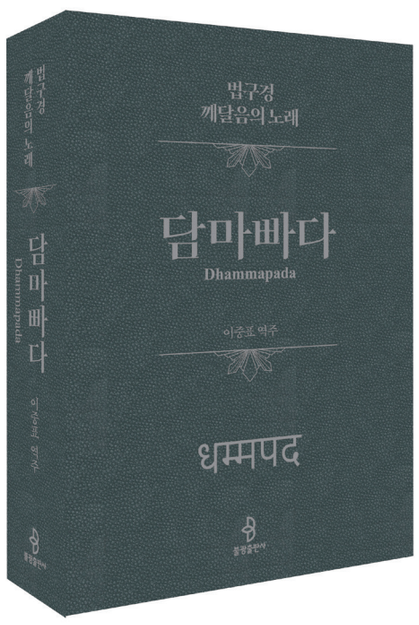
스님들은 마지막으로 마장을 쫓아내는 검은 모자 춤과, 불교철학을 대론하는 티베트의 논쟁을 직접 시연하며 어려운 시기에 모두를 위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모든 기도와 시연의 공덕을 회향했다. 관계자는 " '자비의 힘' 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티베트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따쉴훈뽀는 티베트에서 영향력 있는 사찰 중 하나이며 티베트 불교의 2대 지주이자 따쉴 훈뽀의 정신적 지도자인 11대 판첸 라마는 1995년 달라이라마의 환생 선언을 통해 지정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계승 개입 및 납치로 당시 6세이던 11대 판첸라마는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첫 완역 책!

《담마빠다(Dhammapada, 법구경)》!



법구경
깨달음의 노래

담마빠다
Dhammapada

이중표 역주
480쪽
25,000원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의 고전(古典)
《담마빠다》 빠알리어 원전을 고스란히 옮기다
우리말 담마빠다의 새로운 표준!



딱 한 권 불경을 읽어야 한다면 《담마빠다》를 읽어라!
가장 바른 《담마빠다》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담마빠다》는 8음절로 이루어진 운문 형식이기 때문에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단어를 배치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번역에는 종종 의미가 모호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역자는 이 번역에서 원전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명쾌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_머리말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